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 미 혜**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개인의 정서·심리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아인식을 매개변수로 구성하여, 방임·학대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5차(2014년) 중 1학년 가운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2052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방임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효과 및 자아인식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대 양육방식도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자아인식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보였다. 반면, 학대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자아인식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만이 유의하고, 직접 경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즉,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 모두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인식,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학대에 비해 방임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방임 및 학대 부모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변수로 자아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주제어: 방임·학대 부모양육방식,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청소년기 자녀

* 본 원고는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0193202964@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Satir(1988)는 가정이 한 인간을 사람으로 성장하는 장소이며, 감독을 맡은 어른들 혹은 부모님들은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피플메이커(peoplemaker)라고 하였다(Satir, 1988). 가정이 새사람을 만드는 공장으로 비유되어질 만큼 가족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 인간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하듯,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riss.kr) 내 발행연도 2014년까지의 연구자료 중 부모양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경우는 무려 12,763건(학위논문 6,533, 국내학술지논문 3,229, 단행본 2,995, 공개강의 6)에 달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도되어졌으며, 연구결과 그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영향력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부모양육방식은 각 학자마다 조금씩 상이한 차원 및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며 측정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구분해보자면 긍정적인 부모양육방식, 부정적 부모양육방식인 두 가지의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양육방식 가운데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방임과 학대 유형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경우 다른 부모양육방식과 다르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최근 입양된 아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도 수개월간 한 번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옴이 온몸에 퍼져 2014년 3월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었다(서울경제, 2014.8.11. 신문기사 참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아동학대와 방임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실례라고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36.0%로 대폭 상승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또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e-나라지표).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이라는 연유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염두해볼 수 있다. 즉, 현재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의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앞으로 아동학대의 통계적 수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가해행위이며 아동방임은 해주어야 할 것을 안해주는 태만행위라 할 수 있다(홍미, 김효진, 2015). 이러한 방임과 학대는 자녀의 생리적 욕구, 안정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과 같은 존재욕구, 관계욕구 충족을 방해하게 된다. 즉, 학대와 방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녀는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대와 방임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내부인 심리·정서 차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차적으로 자녀의 외부인 사회적 차원에 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아인식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개인의 심리·정서 차원에 전반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아가 'I'나 'Me'의 특징을 지각하여 구성하고, 'I' 혹은 'Me'의 다른 사람과 여러 생활측면과의 관계를 지각한 것이며, 이러한 지각내용에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개념적 형태(Charles & Karen, 2000)인 점을 고려할 때 자아인식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인식은 사회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자녀의 내부 차원(자아인식), 외부 차원(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임 및 학대 양육방식 수준이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방임 및 학대 유무에 따른 영향 연구와는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로 방임·학대 양육방식을, 매개변수로 자아인식을, 종속변수로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특히, 자아인식이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과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변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자녀의 심리정서 및 사회적 차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먼저 개인의 심리·정서 및 사회적관계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존재에 대한 욕구위계설을 정립한 Maslow의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을 살펴보고자 한다. Maslow는 인간이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가 만족되는 욕구의 다섯 가지 기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첫 번째로 생리적(physiological) 욕구, 다음으로 각 안전(safety)과 보호(security) 욕구, 소속(affiliation) 또는 애정(love)의 욕구, 존경(esteem)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욕구가 뒤를 잇는다고 하였다(Arnolds & Boshoff, 2002). Alderfer는 Maslow 이론을 보완하여 생리적 및 안정 욕구와 같은 존재(Existence) 욕구, 대인관계 유지와 관련된 관계(Relatedness) 욕구, 마지막으로 개인의 발전을 갈망하는 자기 충족적이고 자아실현적인 성장(Growth) 욕구로 구분한 ERG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Maslow와 Alderfer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 관계적, 성장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와 방임 양육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상위의 욕구들의 충족을 저해할 수 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갈망하는 애정, 보호, 자아실현, 사회적관계 등의 욕구를 잘 만족시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형태의 양육방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후성설을 강조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psychosocial developmental theory)을 살펴보고자 한다. Erikson(1950)은 기능 전체가 성취되어질 때까지 규정된 순서 안에서 연대적으로 능력 또는 성격 특질을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요소와 함께, 부분에서 전체로부터 펼쳐져 있는 인간 발달을 전달하기 위해 후성(epigenesis)의 개념을 제시 하였다(Smith-Osborne, 2008). 8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신뢰 대 불신 단계(Trust-Mistrust stage), 둘째, 자율성-수치심 및 의심 단계(Autonomy

—Shame and Doubt stage), 셋째, 자발성 대 죄책감 단계(Initiative-Guilt stage), 넷째, 근면감 대 열등감 단계(Industry-Inferiority stage), 다섯째, 정체성 대 역할혼란 단계(Identity-Role Confusion stage), 여섯째, 친밀감 대 고립감 단계(Intimacy-Isolation stage), 일곱째, 생산성 및 침체감 단계(Generativity-Stagnation stage), 여덟째, 통합성 대 절망감(Integrity-Despair stage)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다. 즉, 인간은 일반적으로 8가지의 단계에서 개인 위기 직면 및 과업 달성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각 단계에서 개인이 신뢰, 자율성, 자발성, 근면감, 정체성 등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면서 성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부모의 양육방식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Yount(2008)은 개인의 환경 안에서 개인,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성격이 성장되어지는데 어머니와 함께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 형제,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로 진행되어진다고 하였다.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은 자녀의 긍정적 해결(positive resolution)을 방해하여, 부정적 해결(negative resolution) 방안인 불신, 수치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람들의 삶 안에서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목적론적이고, 전체론적인 Adler의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을 살펴보고자 한다. Adler의 개인심리학에 의하면 모든 아이들이 소속감의 필요성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의사소통의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은 웰빙을 위한 열쇠가 된다(Shifron, 2010). 사람이 완벽을 추구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 세계에 기여할 속하는 장소를 찾는 것에 의한 것이다(Adler, 1927; Belangee, 2006에서 재인용). 특히, 공동체 감각은 Adler 심리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실천적 목표는 공동체 감각의 육성이다. 즉, Adler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성숙한 인간이 요구되어진다. Adler는 가족이 자녀 개인의 성장 및 개발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었다(Belangee, 2006). 부모는 자녀가 출생하여 가족에서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확장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임·학대 양육방식을 취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신뢰 구축 및 의사소통 등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정은 자녀가 일차적으로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場)이 되어야 하지만,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자녀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까지 Maslow의 동기이론, Erikson의 심리사회적발달 이론,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의 이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생리적, 안전, 보호, 소속, 애정,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둘째, 인간은 일반적인 8가지의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과업을 달성하면서 성장해가는 존재이다. 셋째,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적지향적인 존재이다. 또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인 것이다. 종합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소속감 및 친밀감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을 기여하고자 하는 일련의 인생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사회의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피플메이커(peoplemake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방임·학대는 자녀의 욕구충족과 발달과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방임·학대 부모양육방식이 자녀의 자아인식, 사회적관계(학교적응, 공동체 의식)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본 연구의 맥락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나서 존재, 관계, 성장 욕구를 가지고 노력하는 일련의 발달 과정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양육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 개념적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양육방식, 방임·학대

부모양육방식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지각 태도로서 정의되어지는데(Darling & Steinberg, 1993), 자녀가 사회생활과 상호작용을 습득하게 되는 주요 진입로(avenue)로가 된다(Vandeleur, Perez & Schoebi, 2007). Darling과 Steinberg(1993)는 부모가 다양한 양육행동(parental practices)을 사용할 수 있지만, 부모양육방식(parenting styles)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Matejevic, Jovanovic & Jovanovic, 2014). 부모양육방식은 각 학자마다 다양한

차원과 유형으로 구분된 기준에 의해 측정되어져왔다. Symonds는 부모양육을 거부적-과보호적, 우세적-복종적, Schaefer는 애정적-자율적, 애정적-통제적, 거부적-자율적, 거부적-통제적으로, 오성심과 이종승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구분하였다. 허묘연(2000, 2004)은 국내의 대부분의 척도들이 외국의 평가도구들을 그대로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한국적인 독특한 양육행동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설명, 방임, 학대로 구분된 부모양육방식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부모양육방식 가운데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는 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방임의 유형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방임과 학대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방임 4문항, 학대 4문항으로 부모양육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측정문항을 임의적으로 구분하면, 정서방임 2문항, 물리적방임 1문항, 의료적방임 1문항, 정서학대 2문항, 신체학대 2문항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분해놓은 학대의 유형 기준에 의거해 측정문항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방임은 물리적·의료적방임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학대는 신체·정서학대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

2) 자아인식

자아는 타아에 의해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 즉 보편적인 면을 승인받는 동시에 타아와 구별되는 자신의 특수성을 승인받음으로써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타아와의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며 존재할 수 있다(백훈승, 2006). 자아인식(self-awareness)은 스스로 개인 의식의 객체를 만들고 자신을 향하여 강화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노출(self-disclosure)과 같은 행동적 결과나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Sah & Peng, 2015). 또한, 자기 자신의 내적 사고 또는 감정에 주의를 기

울이고, 자신을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서 인식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어질 것에 대한 우려나 타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불편함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辻, 1994; Fenigstein, 1979; 은혁기, 2001에서 재인용). Kagan(1981)에 따르면, 아이들은 개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의 측면에서 그들의 외형 및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아인식을 시작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Asendorpf & Baudonniere, 199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란 한 개인의 모든 부분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를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자아인식의 하위영역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으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을 하위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5차 중1패널에서는 자아탄력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자아인식의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positive) 또는 부정적인(negative) 자기태도(self-attitude)로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판단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자아정체감(ego-identity)은 어린시절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미래까지의 긴 시간 사이의 점진적인 연속성 가운데에서 느끼는 자기 지각(Erikson, 1968; Waterman, 1982에서 재인용)으로서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이다(오세진 외, 2006). 셋째,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은 직업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개인이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Holland, 1985; 이상희, 서유란, 201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를 포함하는 일련의 맥락 속에서 타인과 나를 구분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태도를 자아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아인식의 하위변수로 자아존중감('나'라는 존재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아정체감('나'라는 존재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에 대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지), 진로정체감(직업영역과 관련된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을 통해 자아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3) 사회적관계

사회적 관계란 공식적·비공식적 형태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는 서로 상이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범위적 차원에서는 개인-학교 간의 관계인 학교적응, 거시적 차원에서는 개인-공동사회 간의 관계인 공동체의식을 연구적 범위에 포함하였다.

먼저, 학교적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적응이란 학교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요구에 학생이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irch & Ladd, 1996; 임재연, 이선숙, 박종효, 2015에서 재인용). 강유진과 문재우(2005)는 학교생활 태도, 학업성취 성적, 학교만족도 등 세 가지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유안진, 이점숙과 서우현(2004)은 학교적응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교사와의 관계 및 교우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와 교칙준수와 같은 자기 규제와 관련된 영역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규범, 질서를 준수하고, 수업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고, 교우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며,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학교적응으로 본 이정윤과 이경아(2004)와 동일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Gusfield(1975)는 공동체의 용어를 영토적 및 지리적인 개념(이웃, 마을, 도시)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간관계의 질과 관련한 관계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즉, 공동체는 소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부터 전 인류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차원에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은 어느곳에나(everywhere) 존재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의미는 지역사회와 지리적 영역의 지역성 및 집합적 성격을 의미하기보다는 ‘함께’라는 정서적, 정신적 측면의 공감대를 나타낸다(Mannarini & Fedi, 2009; 위유라, 노충래, 2014에서 재인용). Durkheim(1897, 1951)적 관점에서 인간 공동체는 순수한 경제 관계 물질적, 물리적, 계산적 이익가치가 행사하는 응집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비물질적, 정신적 가치, 도의적 힘, 양심, 의리 등 인간적 가치가 행사하는 규율력에 의하여 통합

되는 경향을 보인다(박승관, 2011). 원론적으로, 공동체의식의 단위는 여럿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 지구 등 특정 개인이 속한 모든 집단이 그 단위가 될 수 있다(정대연, 전경숙, 박은미,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봉사적 차원, 학급이나 동아리와 같은 집단 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는 민주의식, 인성교육 등의 일부분으로서 다루어져왔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공동체의식 수준을 4가지의 문항으로 통합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각 문항은 친구간, 국가내, 국가간, 범국가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간, 국가내, 국가간, 범국가적 4가지의 차원을 하위변수로 구성하여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친구간의 미시적인 차원에서부터 범국가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서적, 정신적 측면의 공감대에 대한 지각 수준을 공동체의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방임·학대 양육방식과 자아인식, 사회적관계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가운데 낮은 자아존중감, 학교부적응, 학습문제 등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1979)는 논리적 설득에 기반한 부모의 교육 방식이 자녀들의 인지 능력 향상과 자긍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낳고 반대로 체벌 중심의 양육 방식은 공격적 성향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김재은, 김상학, 2006). 즉,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자녀의 자아인식, 사회적관계와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방임·학대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방임·학대와 자아인식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임·학대-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규명한 이채남(2006)의 연구결과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윤아(2014)와 김광혁(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방임과 학대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석강(2003)의 연구결과 모의 방임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학대와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방임·학

대-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규명을 시도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하영과 권기남(2004)의 연구결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방식이 지지적일수록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이 높고, 자아정체감은 양육방식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가르침·존중·관심적 부모양육이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서진숙과 이동혁(2010)의 연구결과에 따라 방임·학대 부모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방임·학대-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규명한 손덕지(2014)는 연구결과 모의 학대가 열등감을 매개로 진로성취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석강(2003)의 연구결과 모의 방임은 진로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임·학대와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기원(2015)의 연구결과 방임은 사회적위축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김서현, 임혜림과 정익중(2014)의 연구결과 방임과 학대는 교우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지연, 손영은과 남석인(2014)의 연구결과 부모학대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김혜금과 양숙경(2014)의 연구결과 방임과 학대는 또래애착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임·학대와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방임·학대와 공동체의식 간의 영향력 검증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혜금과 양숙경(2014)의 연구결과 방임은 지역사회인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인식과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수정(2004)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신수진(2010)은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문은식(2015)은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각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선숙과 안재진(2012)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최천(2012)의 연구결과 자아정체감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방임·학대 부모양육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많지만, 공동체의식 간의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가운데 단일의 변수만이 활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종속변수에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연구모형에 추가하였고, 단일의 매개변수로 활용되었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변수를 자아인식이라는 총체적인 요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확장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심리·정서적 차원인 자아인식, 사회적 차원인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로 방임·학대를, 매개변수로 자아인식을, 종속변수로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을 구성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직접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방임은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1-1, 1-2, 1-3)’ ‘학대는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1-4, 1-5, 1-6)’ ‘자아인식은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1-7, 1-8)’ 둘째, 간접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자아인식은 방임과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가설 2-1, 2-2)’ ‘자아인식은 학대와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가설 2-3, 2-4)’ 이러한 연구가설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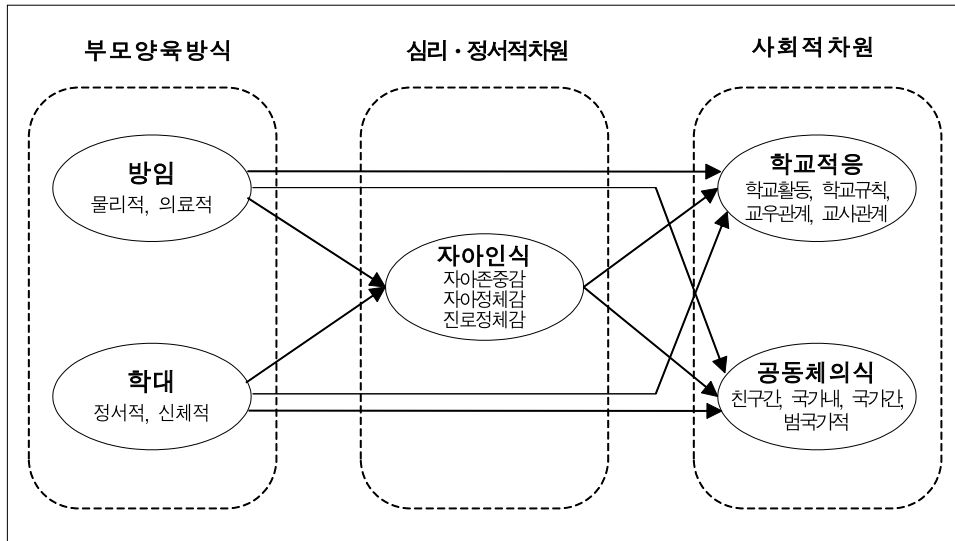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는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5차(2014년) 중 1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이라는 변수가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2052명)에 대한 분석자료만을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공신력 있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결과이며, 표본 추출 또한 확률표본추출 방법인 다단계화집락표집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방임·학대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대 유형 기준에 따라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구분하였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는 방임·학대 양육방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방임·학대의 유무를 측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자아인식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으로 구분, 학교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표 1). 각 측정도구의 측정형태는 ‘(1)

매우그렇다-(2)그런편이다-(3)그렇지않은편이다-(4)전혀그렇지않다'인 4점 리커트 척도이며, *표시가 되어 있는 문항의 경우는 역코딩(5-x)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학대,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구분		설문문항
독립변수	방임	물리적 내 몸이다,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의료적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학대	정서적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예 :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신체적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매개변수	자아 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자아 정체감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구분	설문문항
중 속 변 수	학 교 적 응	진로 정체감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학 교 적 응	학습 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학습 규칙	학습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교우 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교사 관계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공 동 체 의 식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친구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국가내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국가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범국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 결측치 확인 및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는 빈도분석, 평균 및 분산을 살펴보는 기술통계분석, 설문에 의해 측정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 여부를 살펴보는 신뢰도분석, 각 변수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분석도구로 SPSS 20.0을 활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복잡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도구로 AMOS 21.0이 활용되었다.

IV. 통계분석

1. 조사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5차 중 1패널 데이터 가운데 ‘학교를 그만 두었다(39명)’에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2052명)’는 응답자만을 통계분석에 포함하였다.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은 표 2이다.

첫째,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048명(51.1%), 여자가 1004명(48.9%)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함을 보였다. 둘째,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9명(0.4%), 2학년이 2040명(99.4%), 3학년이 2명(0.1%)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 1345명(65.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특성화 고등학교 393(19.2%), 자율형 고등학교 224명(10.9%), 특수목적 고등학교 84명(4.1%)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지역별로는, 수도권인 경우가 615명(30.0%), 비수도권은 1437명(70.0%)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048(51.1)	학교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15(30.0)
	여자	1004(48.9)		비수도권	1437(70.0)
	합계	2052(100.0)		전체	2052(100.0)
학년	1학년	9(0.4)	학교 유형	일반고등학교	1345(65.5)
	2학년	2040(99.4)		자율형 고등학교	224(10.9)
	3학년	2(0.1)		특수목적 고등학교	84(4.1)
	모름/무응답	1(0.0)		특성화 고등학교	393(19.2)
	합계	2052(100.0)		기타	6(0.3)
				합계	2052(100.0)

2. 기술통계분석

기술통계분석 결과, 첫째, 독립변수인 방임의 전체 평균은 1.644이고, 하위변수로 구성된 물리적방임과 의료적방임은 각 1.687, 1.601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전체 평균은 1.613이고, 하위변수인 정서적학대와 신체적학대는 각 1.796, 1.430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변수인 자아인식의 전체 평균은 2.849이고, 하위변수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은 각 2.901, 2.683, 2.963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의 전체 평균은 2.950이고, 하위변수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각 2.750, 2.996, 3.150, 2.903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의 전체 평균은 2.968이고, 하위변수인 친구간, 국가내, 국가간, 범국가적 공동체의식은 각 3.126, 2.744, 2.855, 3.147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방임·학대 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중간정도이며, 자아인식 및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은 ‘그런편이다’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3. 신뢰도분석

측정도구의 신뢰성 확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신뢰도분석 결과, 방임(0.754)과 학대(0.821), 자아인식(0.693), 학교적응(0.718), 공동체의식(0.743) 측정도구의 Cronbach α 값이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하위변수인 정서적학대 측정도구의 Cronbach α 값이 0.587의 수치를 보였으나 0.6과 근접한 수치이므로 신뢰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문항의 삭제없이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4. 상관관계분석

각 상위변수들 간의 상관정도와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3), 방임은 학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방임은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대 또한 방임과 마찬가지로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인식과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임의 하위변수와 공동체의식의 하위변수 간의 부적 상관정도와 비교해볼 때, 학대의 하위변수와 공동체의식의 하위변수 간의 부적 상관정도는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학대-친구간 공동체의식, 정서적 학대-국가내 공동체의식, 신체적 학대-친구간 공동체의식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표 3

상위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번호	변수	방임	학대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1	방임	1				
2	학대	.268**	1			
3	자아인식	-.328**	-.170**	1		
4	학교적응	-.421**	-.233**	.474**	1	
5	공동체의식	-.252**	-.088**	.351**	.517**	1

참고 : * $p < 0.05$, ** $p < 0.01$

5.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방임(물리적, 의료적), 학대(정서적, 신체적), 자아인식(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학교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의식(친구내, 국가내, 국가간, 범국가적)의 모든 측정모형을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먼저,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의 p값이 0.000(0.05이상 최적), Q값(CMIN/DF)이 9.220(3이하 최적)으로 2개의 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RMR값이 0.013(0.05이하)으로 적합, RMSEA값이 0.063(0.05이하 최적)으로 적합, GFI값이 0.952(0.9이상 최적)로 적합, AGFI 값이 0.928(0.9이상 최적)로 적합, NFI값이 0.924(0.9이상 최적)로 적합, TLI값이 0.910(0.9이상 최적)으로 적합, CFI값이 0.932(0.9이상 최적)로 7개의 기준에는 적합함을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5). 첫째,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에 대한 개념타당성 검증결과, 모든 관측변수의 표준화 계수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변수 자체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수렴타당성 검증결과, AVE 값이 모두 0.5 이상, 개념신뢰도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AVE(평균분산추출) 값은 잠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정보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의미가 있다고 한다(허준, 2014). 셋째,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두 구성개념간 각각의 AVE 값과 두 구성개념간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했을 때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크므로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개념/수렴 타당성 판별

요인	측정항목	표준 적재치	비표준 적재치	SE	t	p	AVE	개념 신뢰도
방임	물리적방임(b1)	0.752	0.965	0.043	22.309	***	0.819	0.900
	의료적방임(b2)	0.804	1.000	-				
학대	정서적학대(h1)	0.774	0.936	0.056	16.619	***	0.855	0.922
	신체적학대(h2)	0.902	1.000	-				
자아 인식	자아존중감(i1)	0.699	0.948	0.044	21.547	***	0.791	0.918
	자아정체감(i2)	0.797	0.940	0.042	22.167	***		
	진로정체감(i3)	0.572	1.000	-				
학교 적응	학습활동(s1)	0.622	0.950	0.044	21.425	***	0.744	0.920
	학교규칙(s2)	0.575	0.802	0.040	20.261	***		
	교우관계(s3)	0.758	0.817	0.034	24.125	***		
	교사관계(s4)	0.590	1.000	-				
공동체의식	친구 내(c1)	0.604	0.858	0.039	21.905	***	0.627	0.870
	국가 내(c2)	0.661	1.267	0.054	23.392	***		
	국가 간(c3)	0.674	1.222	0.052	23.712	***		
	범국가적(c4)	0.670	1.000	-				

적합도 : $\chi^2=737.595(df=80, p=0.000)$, CMIN/DF=9.220, RMR=0.013, RMSEA=0.063, GFI=0.952, AGFI=0.928, NFI=0.924, TLI(NNFI)=0.910, CFI=0.932

참고 : * $p<0.05$, ** $p<0.01$, *** $p<0.001$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판별 타당성 판별

구분	방임	학대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방임	0.819*				
학대	0.352(0.124)	0.855*			
자아인식	-.426(0.181)	-0.232(0.054)	0.791*		
학교적응	-.592(0.350)	-.311(0.097)	.660 (0.436)	0.744*	
공동체의식	-.339(0.115)	-.131(0.017)	.463 (0.214)	0.706(0.498)	0.627*

참고 : *의 값은 AVE, ()의 값은 결정계수(상관계수의 제곱) 값

6.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모형적합도 판별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추정을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이 사용되었다. 본격적인 구조방정식 이론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이 적합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χ^2 의 p값이 0.000(0.05이상 최적), Q값(CMIN/DF)이 12.297(3이하 최적)로 2개의 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RMR값이 0.019(0.05이하)로 적합, GFI값이 0.936(0.9이상 최적)으로 적합, AGFI 값이 0.905(0.9이상 최적)로 적합, CFI값이 0.905(0.9이상 최적)로 4개의 기준에는 적합하고, RMSEA 값이 0.074(0.05이하 최적)로 1개의 기준에는 양호하고, NFI값이 0.897(0.9이상 최적)로 근접, TLI값이 0.876(0.9이상 최적)으로 2개의 기준에는 근접하게 나타났다.

2) 최종 연구모형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크게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직접효과 검증결과(표 6), 방임은 자아인식(-0.398***), 학교적응(-0.352***), 공동체의식(-0.195***)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다. 반면 학대는 자아인식(-0.098***), 학교적응(-0.050*)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으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자아인식은 학교적응(0.561***), 공동체의식(0.477***)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둘째, 간접효과 검증결과 방임→자아인식→학교적응, 방임→자아인식→공동체의식, 학대→자아인식→학교적응, 학대→자아인식→공동체의식의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보였다(표 7). 즉, 자아인식은 방임·학대가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학대에서 공동체의식으로 가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자아인식이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8,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가운데 학대→공동체의식 경로의 직접효과(가설 1-6)만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이 기각되었고, 그 외의 연구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 6
직접효과 검증 결과

가설(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t	p	채택 여부
1-1	방입→자아인식	-0.398	-0.270	0.023	-11.666	***	채택
1-2	방입→학교적응	-0.352	-0.247	0.023	-10.890	***	채택
1-3	방입→공동체의식	-0.195	-0.147	0.026	-5.726	***	채택
1-4	학대→자아인식	-0.098	-0.055	0.017	-3.337	***	채택
1-5	학대→학교적응	-0.050	-0.029	0.014	-2.059	0.039*	채택
1-6	학대→공동체의식	0.048	0.030	0.017	1.748	0.080	기각
1-7	자아인식→학교적응	0.561	0.582	0.036	15.943	***	채택
1-8	자아인식→공동체의식	0.477	0.531	0.041	12.904	***	채택

참고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7
부스트래핑 결과(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 BC)

구분	방입	학대	반복횟수
학교적응	0.006**	0.01**	200
공동체의식	0.007**	0.006**	200

참고 1 : * $p < 0.05$, ** $p < 0.01$, *** $p < 0.001$

참고 2 : 유의수준과 유의확률이 동일한 경우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았음

표 8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결과 종합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방입 → 학교적응	-0.352	-0.398 * 0.561 = -0.223	-0.352 + -0.223 = -0.575
방입 → 공동체의식	-0.195	-0.398 * 0.477 = -0.190	-0.195 + -0.190 = -0.385
학대 → 학교적응	-0.050	-0.098 * 0.561 = -0.055	-0.050 + -0.055 = -0.105
학대 → 공동체의식	0.048	-0.098 * 0.477 = -0.047	0.048 + -0.047 = 0.001
방입 → 자아인식	-0.398		
학대 → 자아인식	-0.098		
자아인식 → 학교적응	0.561		
자아인식 → 공동체의식	0.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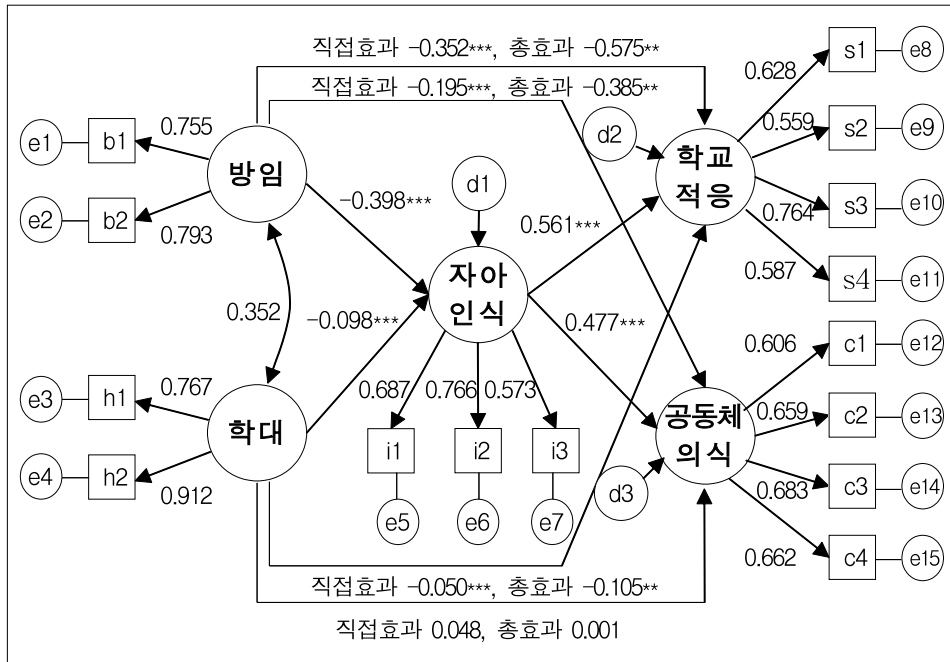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방정식 분석모형 분석결과 종합(표준화 계수)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실증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아인식, 사회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방임과 학대 유형의 부모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아인식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방임은 자아인식,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 모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학대는 자아인식,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보였

으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자아인식은 방임-학교적응, 방임-공동체의식, 학대-학교적응, 학대-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의 부정적 영향은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력은 사회적관계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아인식이 부모양육방식과 자녀의 사회적관계를 매개하는 핵심변수임을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가운데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학대에서 공동체의식으로 가는 직접경로에 대한 영향력이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는 않았지만 학대는 공동체의식의 직접경로에서 정적인 표준화 경로계수 값을 보였다.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고, 간접경로가 유의하여 자아인식은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대에서 공동체의식으로 가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에 대한 영향력이다. 자아인식을 매개로 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으나, 직접효과와 합해지는 과정에서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약한 정적 표준화 경로계수 값을 보였다. 이는 학대와 친구간, 국가간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난 결과를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 가운데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자녀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학대가 공동체의식에 정적 경로계수 값을 보인 연유를 해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학대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어려움이 따르며, 자칫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학대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시도를 통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학대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어질 연구에 탐색적 차원에서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정책적 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이나 공동체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임·학대 양육방식 수준을 낮추거나, 자녀의 자아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첫째, 가족정책 차원에서의 접근 방안 논의가 가능하다. 부모양육 및 가정과 관련한 가족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 규모의 가족조사를 통해 한국 가족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실태조사가 2005년부터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조희급 외(2010)의 제2차 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 및 교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3.1%,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8%로 나타났다.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3.1%)이 차지하였다. 부모가 자녀 양육방법과 지식이 부족할 경우 학대 관련 인식의 결여로 이어져 자녀를 학대하기 쉽기 때문에 이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의 주요정책과제에는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있다. 그 가운데 자녀 돌봄 지원강화-부모역할지원-부모역량강화 정책과제에는 부모교육 및 상담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기 아동·청소년의 부모교육 강화, 부모를 위한 콜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정책과제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예비 부부 및 신혼기 부부 프로그램, 아동·청소년기 가족교육, 중년기 가족교육, 노년기 가족교육), 남성대상 교육, 가족성장 아카데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사업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해서도 일반부모, 이혼부모, 예비부모, 다문화 부모,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모 및 가족교육에는 방임과 학대에 초점을 둔 전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못함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방임과 학대 수준이 높은 부모에 대한 교육은 아동학대 전

문기관에서 주관되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방임·학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모나 보호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양육방식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부모 및 가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가족정책의 토대가 되어 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1조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으며,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한 명의 인간을 만드는데 일차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차원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 차원에서의 접근 방안 논의가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부모 및 가족교육의 경우 건강가족정책과 관련이 있다면, 자녀의 자아인식 및 사회적관계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교육정책이다. 부모양육 및 가정과 관련한 가족정책은 부모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부모에 대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가족교육의 필요성이 자칫 부정적인 시각에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분도 교육적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자아인식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교육은 부모교육에 비해 긍정적이며,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자아인식 및 사회적관계에 대한 교육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등 자아인식의 확립을 성취하고 원활한 사회적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자아인식, 친구관계, 공동체의식은 인성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천세영 외(2012)는 인성의 3가지 차원을 도덕성(핵심가치인식, 책임있는 의사결정), 사회성(사회적인식, 대인관계), 감성(자기인식, 자기관리)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차원과 감성 차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감성 능력의 발달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시 자기인식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현주외(2014)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부분에서 인성교육이 각 1순위(61.0%, 53.6%, 40.2%)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 내에서 인성교육

에 대한 지도는 제대로 수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재춘, 강충열, 소경희, 손민호와 진동섭(2012)의 연구에서 수행된 델파이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성적/지식/결과/경쟁/시험 중심 교육이 1순위를 차지하였다. 현주, 이해영, 한미영, 서덕희와 류덕엽(2013)의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의 부모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이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빈도(37.5%)를 보였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배정 시간을 늘린다거나, 국·영·수의 주요과목 배정 시간을 축소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대학입시경쟁이 만연한 사회 내에서는 다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가능성이 있다. 현주 외(2013)의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모든 교과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의견이 1순위(23.2%)를 차지하였다. 독일의 인성교육은 한 두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을 중요한 목표로 지향하는 총체성을 가진다(이명준 외, 2011). 즉,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책은 인간의 인성함양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교육과정에서부터 중요시되고 있는 경쟁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인성교육은 국·영·수 등 주요과목 진도빠기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인성교육이 일반 교육과정과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기 보다 전체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신력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가운데 하나의

변수만을 선택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본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지만,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총체적인 요인으로서 자아인식을 매개변수로 구성하고, 종속변수에 공동체의식 변수를 구성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을 보다 확장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1차 자료가 아닌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이번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가운데 중1패널에 대해서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여, 자아인식의 하위변수로 자아탄력성을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이 정서적, 정신적 측면의 공감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추후에는 정서적, 정신적 측면을 포괄하여 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 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전자저널).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관계부처합동 (2015).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전자저널).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4). 중학생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로 (전자저널). **한국청소년연구**, 25(4), 5-33.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전자저널).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재운, 김상학 (2006).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과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재춘, 강충열, 소경희, 손민호, 진동섭 (2012). **실천적 인성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교육과학기술부정책 2012). 서울: 교육부.
- 김혜금, 양숙경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자저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117-131.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전자저널).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전자저널). **아동학회지**, 35(1), 1226-1688.
- 박승관 (2011). 한국 사회와 소통의 위기: 소통의 역설과 공동체의 위기.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 진단과 전망 학술발표 자료집**, 93-106.
- 백훈승 (2006). 찰스 테일러와 헤겔에 있어서 자아정체성 및 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전자저널). **철학연구**, 100, 355-383.
- 서진숙, 이동혁 (2010).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안녕감을 매개하는 자아정체감

- (전자저널). **한국상담학회**, 11(4), 1599-1622.
- 손덕지 (2014). **부정적 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성취와 대인관계 성취에 미치는 영향: 열등감을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수진 (2010).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수정 (2004).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전자저널). **청소년학연구**, 21(12), 261-284.
- 오세진, 김청송, 신맹식, 양계민, 이요행, 이장한 외 (2006).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은혁기 (2001). 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만족에 관한 연구: 학령별·성별 차이와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전자저널).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9(1), 136-157.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전자저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이명준 외 (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연구자료 ORM 2011-53-1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 37-53.
- 이윤아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전자저널).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 이채남 (2006). **중학생의 아동학대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재연, 이선숙, 박종효 (2015). 학교폭력 피해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자저널). **한국청소년연구**, 26(2), 5-34.
- 위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전자저널).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정태연, 진경숙, 박은미 (2008). 공동체의식의 함양에서 본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 (전자저널).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14(1), 469-485.
- 조희금, 송혜림, 박정윤, 권태희, 김경화, 김주현 외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15). 서울: 여성가족부.
- 천세영, 김왕준, 성기욱, 정일화, 김수아, 방인자 (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2012-41). 서울: 교육부
- 최석강 (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천 (2012). 태권도수련생의 자아정체감이 조직몰입 및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전자저널). **한국체육과학회지**, 21(6), 527-538.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전자저널).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 허준 (2014).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기초)**. 서울: 한나래.
- 현주, 이혜영, 한미영, 서덕희, 류덕엽 (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I**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과제 탐색-RR2013-01). 서울: 교육부.
- 현주, 임소현, 한미영, 임현정, 손경원, 정기랑 (2014). **초·중등 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도구의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CR 2014-3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미, 김효진 (2015). 이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전자저널). **학술지보건복지포럼**, 128, 47-59.
- Arnolds, C. A., & Boshoff, C. (2002). Compensation, esteem valence and job performance: An empirical assessment of Alderfer's ERG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3(4), 697-719.
- Asendorpf, J. B., & Baudonnière, P. M. (1993).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Mirror self-recognition and synchronic imitation among unfamilia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88-95.
- Bandura, Albert. (1977). *social learning theory*. General learning peress.
- Belangee, S. E. (2006). Individual psychology and eating disorders: A theoretical application.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2(1), 3-17.

- Charles, Zastrow., & Karen K. Kirst-Ashman. (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김규수, 김인숙, 박미은, 박정위, 설진화, 우국희 외 역.). 서울: 나눔의 집. (원저 2000 출판)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Gusfield, Joseph R. (1975). *Community: A critical response*. Oxford: Blackwell.
- Matejevic, M., Jovanovic, D., & Jovanovic, M. (2014). Parenting Style, Involvement of Parents in School Activities and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In International Conference: EDUCATION AND PSYCHOLOGY CHALLENGE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288-293.
- Shifron, R. (2010). Adler's need to belong as the key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6(1), 10-29.
- Smith-Osborne, A. (2008). Life span and resiliency theory: A critical review. *Advances in Social Work*, 8(1), 152-168.
- Yount, W. R. (2008). Transcendence and aging: The secular insights of erikson and maslow.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21(1-2), 73-87.
- Vandeleur, C. L., Perrez, M., & Schoebi, D. (2007). Associations between measures of emotion and familial dynamics in normative families with adolescent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6(1), 5-16.
- Sah, Y. J., & Peng, W. (2015). Effects of visual and linguistic anthropomorphic cues on social perception, self-awareness, and information disclosure in a health websit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392-401.
- Satir, V. (2000). **아름다운 가족** (나경범 역.). 경기: 창조문화. (원저 1988 출판)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2에서 2015년 8월 10일 인출.
- 서울경제 (2014.8.11.). '그것이 알고싶다 동화의 집' 아동, 사진 속 음 퍼진 알몸...의사도 충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c=0002558078>에서 2015년 8월 1인 인출.

ABSTRACT

The effects of neglectful · abusive rearing styles of parents on school adjust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 children: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wareness

Choi, Meehye*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elf-awareness, school adjust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 children according to the effects of neglectful · abusive rearing styles of parents. In particular, self-awareness consists of parameters that are important in the emotions and psychologies of the individual.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f selected self-awareness variables. Empirical analysis, using data of high students attending school taken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has been utilized in the analysi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a neglectful rearing style of parents was see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and direct effects upon school adjust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in children. Additionally, an abusive rearing style had a significant impact and direct effect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However, direct effects on the child's sense of community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In addition, the self-awareness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Through this, self-awareness has been revealed as one of the key variables which can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neglectful ·

* Dankook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Doctor Course, 0193202964@hanmail.net

abusive rearing styles of parents. Based on these results, ways to improve the social relations of adolescent children can now be attempted.

Key Words: neglectful · abusive rearing style, self-awareness, school adjustment, sense of community, adolescent children

투고일: 2015. 12. 7, 심사일: 2016. 3. 14, 심사완료일: 2016. 3. 21